

해남군 “기회발전특구 해남이 최적지입니다”

솔라시도·화원산단 첨단전략산업, 기회발전특구 신청

데이터센터·해상풍력 관련기업유치...조기대응 성과 빛나

해남군이 첨단전략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향한 힘찬 날개짓을 시작했다.

전남도는 31일 도내 3개지구, 6개 산업 433만㎡(131만평)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중 해남군은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조성 66만㎡(20만평)와 화원산단 해상풍력 20만㎡(6만평) 등 총 86만㎡(26만평)이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지방 이전·투자 기업이 신청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세제와 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목표이다. 전남도에서 산업자원통상부 신청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 6월에 지정이 결정될 예정이다.

해남을 비롯한 서부권은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및 데이터센터 중심의 첨단전략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게 된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165만㎡(50만평) 규모의 RE100 산업단지과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한 화원산단은 정부 서남해안권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배후단지로서 국내 최대인 99만㎡(34만평) 규모 해상풍력 기차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국내 굴지의

13개 기관, 기업이 참여하여 글로벌 데이터센터파크 투자협약을 맺었고, 전남지역에서 4.5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크레도모프소어사와 4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기회발전특구 신청에 해남이 대거 포함된 것은 해남군이 장기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3대 핵심사업 중 '서남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은 정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업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타당성 방안을 활발하게 준비하는 등 선제적인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총 10개, 사업비 약 3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성사된다면 각종 개발사업과 맞물려 '꿈의 도시'의 청사진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의 신재생 에너지 중심 기업 유치와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연스러운 젊은 인구의 유입이 가속화되리라 전망된다"며 "기업도시 기반이 속속 갖춰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성사된다면 명실상부 활성화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해남군은 앞으로 전남도와 함께 세제 및 재정 보조, 정주지원 등 기업들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남도 및 연관 기업과 면밀히 협의해 특구에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해남김동주 기자

광양 ‘올해의 책 선포식’ 17일 개최

작가와와의 만남·클래식 공연 등 볼거리 풍성

광양시가 오는 17일 오후 2시 광양중앙도서관 문화공간 하에서 '2024 광양시 올해의 책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민 한 책 읽기'를 본격 추진한다.

2010년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광양시 올해의 책' 사업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지역사회 대중 독서운동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운동의 하나로 시민 독서문화 정착과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독서진흥 운동이다.

이번 행사는 클래식 앙상블 '아르카시어'의 현악 3중주 공연으로 시작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어린이 부문 '열세 살의 걷기 클럽'

의 김혜정 작가 ▲청소년 부문 '비스킷'의 김선미 작가 ▲성인 부문 '카페 네버랜드'의 최남영 작가를 초청해 '작가와와의 만남'을 운영할 예정이다. 진행은 독서 행사 전문 사회자 윤유가 맡는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질의응답 및 사인회 시간을 통해 작가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일 오전 10시부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 독서문화마당 수강신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도서관과 도서관지원팀(061-797-3854)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광양=조순익 기자

담양, 정례조회서 '적극행정' 실현 강조

이병노 군수 "발로 뛰는 군민 체감 현장행정 추진" 주문

담양군은 1일 군청 송강정실(구 영상회의실)에서 4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간부공무원이 참석하고 전 직원이 영상으로 함께 참여한 이번 정례조회에서 이병노 군수는 3월 한 달 군정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으며, 민선 8기 3년 차 1분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주요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서 완연한 봄을 맞아 군에서 개최 예정인 금성면 고비산 산빛꽃 축제와 수북면 몽성산 피라미드 축제, 대표 축제인 제23회 담양대나무 축제가 주민들의 화합과 더불어 지역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 최

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도입된 생활 인구에 대비해 다양한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에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정한 선거 추진, 공시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접수 및 조사를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병노 군수는 "각종 현안과 축제 등 행사 준비 시 전 공직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군민과 동행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강진 '전년도 재난관리 실태'

군 누리집 통해 주민 공시

강진군이 '2023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군 누리집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재난관리 실태 공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추진한 재난관리 분야 투자 현황 및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재난관리 실태 공시 대상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 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현황 등 총 13종으로, 재난관리 실태를 통해 최근 5년간 재난관리 현황 등을 알기 쉽게 수치화 및 도표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강진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1천만원을 확보해, 법적 적립 기준액의 100.5%를 확보했으며, 재난 대응 조직 구성 및 정비, 재난 대비 교육·훈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을 충실히 이행해 신속한 재난 대응 및 복구에 만전을 기했다는 평가이다. /강진=한홍수 기자

완도 '전남 정원 페스티벌'

참여 정원 참가자 모집

완도군에서 '제4회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 참여 정원 참가자를 4월 8일까지 모집한다.

'제4회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정원이 함께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총 30개의 참여 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참여 정원의 주제는 정원 페스티벌을 찾는 관람객이 정원을 관람한 후 집에 적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정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이나 하우스 가든', 즉 '작은 집과 같은 정원'으로 선정했다.

참가 자격은 정원 조성에 관심과 경향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출품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 3팀, 우수 6팀 등 총 9개 팀을 선정하여 5월 3일 페스티벌 개막식 때 시상할 예정이다.

선정된 참여 정원은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해변공원 일원에 조성되며, 페스티벌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시된다.

한편 지난해 완도군에서 개최된 '제3회 전남 정원 페스티벌'은 국내 최초로 해변 부지에서 열리고 50여 개의 특색있는 정원을 갖춰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전시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완도=이두식 기자

'이순신의 선택, 노적봉' 목포시 유달산 봄축제 성료

유달산의 봄, 수군문화와 역사 등 융합 '호평'

수군 출정퍼레이드 등 볼거리·즐길거리 가득



목포시는 봄이 찾아온 유달산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2024 유달산 봄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이순신의 선택, 노적봉'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유달산 봄축제는 주제

에 걸맞은 만호수군 출정퍼레이드로 축제의 문을 열었다.

판옥선 차를 제작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 이번 퍼레이드에는 22개 동 주민 참여단, 어린이집, 해군 3할대, 목포해양대와 시민 및 관광객 참

여단, 체전 홍보단 등으로 구성됐다.

축제 퍼레이드는 조선수군과 현대수군, 그리고 목포시민이 함께 모여 수군역사의 본거지인 목포를 담아내고, 시대를 초월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또 함께 참여한 시 체육회 등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의미를 더했다.

시는 수군의 문화와 역사를 홍보하고자 올해 수군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만호수군 출정퍼레이드와 수군무예공연, 수군 병영체험관, 만호 이순신 역사홍보관, 이순신 유적지 순례단, 사랑의 노적 쌓기 등을 선보였다. 특히 이 프로그램들은 즐거움은 물론 교육적 효과를 더해 가족단위의 관광객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목포=김근호 기자

진도 고군농공단지 '환경개선 패키지' 공모 선정

2027년 완공 목표 국비 등 86억원 투입

아름다운 거리 조성·청년문화센터 건립

진도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공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패키지 형태로 통합 공모해 복지·문화·편의 시설 집적화가 추진된다.

군은 확보한 국비 60억원 포함 총 86억원을 투입, 고군농공단지 내 정주·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청년문화센터 등을 오는 2027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합·문화시설을 집적

화해 농공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기존의 고군농공단지 관리사 노소를 문화·편의 시설로 증축하고 신규로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해 농공단지 내 기업 성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청년문화센터는 기숙사, 체력단련실, 코인세탁실, 다목적실, 취·창업 보육센터 등으로 운영된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투자유치팀 관계자는 "고군농공단지 내 부족한 문화·복지·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을 지원해 신규

청년 인력을 유입시키고 농공단지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민과 근로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도로·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 고군농공단지를 산업·문화 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킨다.

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노후화된 농공단지 인프라를 개선하고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과 근로자가 찾아가는 고군농공단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백계영 기자

영암군-산청군 농업경영인, 우호 교류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회장 전광열)와 산청군연합회(회장 유승현) 회원 120명이, 지난달 30일 영암군 서영암농협 통합RPC 선별가공유통센터를 견학하고, '2024 영암왕인문화축제' 행사장에서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1999년 영·호남 화합 자매결연 맺은 두 군의 농업경영인은 상호 협력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교류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영암왕인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영

암군을 방문한 산청군 농업경영인들은 농업 선진지를 견학하고, 영암군 농업경영인과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광열 영암군연합회장은 "산청군에서 온 농업경영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영·호남 교류를 선도하고 있는 두 지역의 농업경영인이 함께 농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장을 자주 마련하자"고 말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지원금 확대

유아 1인당 5만원→10만원... 전년도 대비 2배 인상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어린이들의 신체·정신적 발달을 돕는 다양한 체험 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지역 내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들에게 대상으로 유아 10만원, 영아 5만원의 체험프로그램비를 지원한다.

어린이 체험프로그램비 지원사업은 2022년도에 지원연령을 3세 이하에서 5세 이하로 확대했고 지원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야외 체험 등 현장 활동이 많은 유아를 고려해 1인당 10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신학기 반 편성 기준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아동이다.

단, 올해는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를 지급받고 있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경우는 영아만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난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신청받았으며, 3월 말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보육시설 118개소에 보조금을 지급해 총 3859명의 어린이가 지원받게 됐다. /광양=조순익 기자